

구례 섬진강 서시교 철거냐 개축이냐

2020년 집중호우 수해 개축 설계 익산청 철거 뒤 인도교 설치 계획 주민들 재시공 현수교 설치 요구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를 입은 구례군 마산면 서시교 철거를 두고 당국과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 대상인 서시교 전경.

집중호우 수해를 입은 구례 서시교 철거 여부를 두고 당국과 주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 등에 따르면 서시천 계획홍수위 확보를 위한 서시교 개축 공사 설계가 오는 7월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이 범람하고 서시교가 일부 잠기면서 추진됐다. 익산청은 홍수 발생 때 적절한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청이 내놓은 방안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교량을 철거하고 기존보다 3m 높여 새로운 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공사에는 41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현재 교량을 철거하고 사 람과 이륜차·경운기 등이 오갈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신 서시교 남쪽 하단부 1200m 구간 도로를 신설해 전주-순천 간 도로에 연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공사에는 사업비 230억원 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청은 높은 사업비와 옹벽 설치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상가 민원 발생을 우려해 1안보다는 2안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조망권 확보 등이 수월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 200여 명으로 이뤄진 서시교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창승·이하 대책위)는 두

가지 안 모두에 대해 반대 뜻을 펼치고 있다. 우선 다리를 철거하면 몇 초면 건널 거리를 5-10분 이상 우회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대책위는 현 교량을 철거하는 대신 재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교량의 교각 4개를 없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량의 상판 두께를 줄여 높이를 1m가량 높이는 현수교(줄다리) 방식이다. 또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지역의 하천 구조 개선 공사를 벌여 근본적인 홍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천 구조를 개선하고 현수교를 설치하면 계획 홍수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미관을 살리는 현수교를 설치하면 관광 자원화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대책위는 현수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을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주민 투표 등으로 현수교 설치의 당위성을 알릴 방침이다.

구례군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과 없이 익산청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한국하천학회 회장)는 익산청의 설계안에 대해 "계획홍수위 설정 때 정부 결정 고시 후 설계에 적용해야 함에도 현재 고시되지 않은 수치를 교량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교량 기준고(높이) 중 여유고를 2.0m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학적 근거를 공개해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해당 하천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시교는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설치된 길이 150m 4차선 교량이다.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 등 3개 면과 경남 하동군을 이어주며, 1일 평균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초등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 확대

순천시가 초등학생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했는지 알려주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했는지를 문자로 알 수 있다. 각 학교는 휴대전화가 없는 신입생 중 희망자를 수요 조사해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안심알리미 키즈폰 단말기가 무료 지급된다. 통신 서비스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 순천시는 이달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을 준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초등학교·특수학교·대안 교육기관 최초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특수학교·대안 교육기관 최초 입학생이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입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학부모나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오는 18일부터 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신청자격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알리미 서비스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등하교시킬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소리축제, 축제콘텐츠대상 3년 연속 수상

보성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를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축제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보성군은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고수 경연대회, 국악 공연 등 서편제소리축제의 다채로운 행

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4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3년 연속 축제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며 "판소리·고수 분야 대표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만 선셋가든 조성 본격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106억원 들여 전망대 등 건립



고흥군이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일원 2만㎡에 전망대와 카페 등을 조성하는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원 전경. <고흥군 제공>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이 '고흥만 선셋가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흥만 선셋가든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해안과 담수호 조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고흥군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106억원이 들어간다. 고흥만 일원 약 2만㎡ 면적에 전망대와 카페,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이달 중 고흥만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초에 첫 삽

을 들 것으로 고흥군은 내다봤다. 사업 대상지인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일대는 공원이자,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야영장,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을 갖췄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한문선 보임그룹 회장 선출

국내 최대 국가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상공회의소 25대 신임 회장에 한문선(사진) 보임그룹 회장이 당선됐다. 3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여수 상의 1층 챔버홀에서 '25대 1차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한문선 보임그룹 회장을 여수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상의회장 후보는 한 회장과 김창주(주휴엔 대표) 이사 두 후보가 출마했다. 이날 후보 정전 발표 후 김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한 후보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과정에서 출석 의원 43명 중 3명이 퇴장했고 40명 가운데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써 총 39명의 의원이 한 회장을 합의를 추대했다. 이와 함께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 등 5명의 부회장과 2명의 감사, 19명의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하고 회원사들과 협의해서 상의를 함께 잘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